

## 東北亞地域의 環境現像과 課題 및 各國靑少年들의 連帶 必要性

公州映像情報大學長 李 進

### 1. 産業化에 따른 限界, 氣候變化

우리가 사는 地球는 文明化 社會가 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250年間化石燃料 中心의 에너지社會로 環境破壞라는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限界를 안고 있는 社會構造였다. 氣候變化에 따른 多樣한 原因은 그 나라의 主力産業과 나라가 처해있는 餘件에 따라 極端的으로 갈리고 있다.

그 理由는 氣候變化가 가져올 地球 生態的, 社會經濟的 影響에 대한 우려가 共通의 問題이면서 科學的 原因이 明確하지 않고 自國利己主義에 의한 排他的인 立場差異에 그 原因이 있다고 볼 수 있다.

그러나 20世紀에 들어선 이후 自然的 原因으로 糾明할 수 없는 急激한地球氣溫의 上昇은 一般的인 豫測을 벗어나 地球平均氣溫이 0.3 - 0.6℃가上昇했으며 世界氣象機構(WMO)의 豫測에 의하면 앞으로 100年 동안 1- 3.5℃ 上昇할 것으로 豫見하고 있다.

### 2. 大氣環境 改善

東北亞地域에서 發生하는 化石燃料 등 에너지로 인해 發生하는 것으로判斷되는 오존은 大氣汚染 排出原에서 直接 排出되는 1次 汚染物質인 窒素氧化物과 VOC(揮發性 有機化合物)가 서로 光合成 反應을 일으켜 生成되는 2次 大氣汚染物質로서 開發途上國에서 發生하는 가장 나쁜 影響을 주는 物質로 判明되고 있다.

이 物質의 排出을 抑制할 수 있는 淸靜燃料供給 對策은 물론 自動車의增加와 有機溶劑使用增加로 인해 發生되는 二酸化窒素와 微細먼지에 대한科學的인 大氣環境管理體系의 構築 등 國家間 對策마련이 時急하다.

### 3. 海洋還境의 保全

UN의 海洋科學者 專門그룹(GESAMP)은 海洋還境汚染의 定義를 “ 人間活動 等에

의한 海洋還境의 變化가 招來되고 人間에게 害를 주는 水準의環境變化” 라고 定義하고 있다.

東北亞가 共通으로 접해있는 黃海는 灣의 性格을 띤 海峽으로 자칫 汚染 物質로 인한 2次汚染이 深刻할 수 있는 地域이다. 이러한 海洋還境에 대한 關心은 比단 東北亞에 限定된 問題뿐만 아니라 全 世界的으로 關心이 擡頭 되고 있으며 科學의 發達에 따라 漸次 밝혀지고 있는 바다의 重要性은 좀더 根本的인 國家間 共感帶 形成을 통한 바다 살리기 運動으로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.

#### 4. 環境教育의 活性化

國際적으로 重要도가 強調되고 있는 社會와 學校의 環境教育 強化에 대한 重要性을 認識하고 社會教育과 學校教育을 效果的으로 接木시킬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.

오늘 이 자리는 1996년부터 東北亞地域 自治團體間의 交流와 協力을 위해 設立된 東北亞自治團體聯合(NEAR)의 環境分科委員會 核心事業의 一環으로 施行하는 事業으로서 東北亞地域 靑少年들의 環境保全 意志를 높이고 各 地域別交流 및 連帶를 위해 함께하는 자리이다.

그 동안 東北亞自治團體聯合 所屬 自治團體들은 東北亞地域의 環境保全을 위해 誠實히 努力해왔으며 앞으로 開發過程에서 일어날 수 있는 無分別한 自然環境 破壞를 基盤으로 한 經濟 開發戰略 등에 대한 共同對應戰略을 協議하여 왔고, 이와 같은 役割調整 및 運營을 東北亞自治團體聯合 環境 分科委員會에서 수행하고 있다.

따라서 이러한 國家間 討論過程을 통한 國際的 네트워크를 形性하고 情報交換, 靑少年들間의 交流, 環境教育 등의 重要性을 認識하는 機會가되어야 한다.